



즉시 배포용: 2024년 10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허리케인 헬렌 복구 노력에 추가 지원 파견

뉴욕주 방위군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공병 20명 파견

병사와 함께 중장비 17개 지원

[사진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이 도로 건설 및 복구에 특화된 유닛에서 공병 20명을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파견해 허리케인 헬렌(Hurricane Helene) 복구 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덤프 트럭, 백 호, 프론트엔드 로더 및 크레인 등 중장비 17개를 병사와 함께 파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절망에 빠진 이웃을 돕는 일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추가 자원과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허리케인 헬렌 피해 지역의 잔해 청소와 복구 노력을 지원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민간인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청에 응해주신 용감한 뉴욕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10월 3일 파견된 병사들은 2024 Engineer Battalion에 배속되었으며 호스헤즈와 픽스킬 인근 Camp Smith Training Sites에 정주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위치한 South Carolina Army National Guard’s Readiness Center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뉴욕은 허리케인 헬렌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에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9월 26일 Hochul 주지사는 허리케인 헬렌 복상에 대비하여 응급 수상 구조팀과 장비를 노스 캐롤라이나로 파견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옌시 카운티로 파견된 팀은 대원 16명, 구조견 2마리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9월 29일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방위군에 방위권 16명과 해비 리프트 헬리콥터 세대를 로체스터에서 그린빌에 위치한 South Carolina Army National Guard로 파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방위군은 애쉬빌 지역에서 노스 캐롤라이나 구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식료품과 물 등을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구조 지원 물품 65,000 파운드 이상을 이송했고 비상 인력 15명을 보냈습니다.

9월 30일 주지사는 Hochul 주지사는 허리케인 헬렌 복구 지원을 위해 노스 캐롤라이나 애쉬빌에 30명으로 구성된 사건 관리팀을 파견했습니다. 대기관 소속 직원 및 지방 정부로 구성된 특별팀이 대응 활동 운영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Jackie Bray 국토안보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케인 헬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미 현장에 파견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이번 폭풍으로 삶의 근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Ray Shields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방위군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방위군의 요청에 응답했고 공병팀과 중장비를 사우스 캐롤라이나 폭풍 복구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해외나 국내 등 장소에 관계 없이 언제나 도움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병사들은 다시 한번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나 그 곳에 있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뉴욕주 방위군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